

아웃리치 갔을 때 지켜야할 에티켓

-고건 장로

“아웃리치 떠나기 전 알아둡시다”지역마다 그곳의 기본적인 문화와 분위기가 있다. 현지 교회와 선교사는 그것에 순응하려고 오랫동안 노력해왔다. 아웃리치팀이 나가서 그것을 무시하고 한국에서 하던 대로 행동하면 현지 주민과 한국교민들에게 너무 큰 충격과 상처를 입힌다. 현지에서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항의가 직접적으로 없었다고 해서 여러분의 행동에 문제가 없었다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나는 자주 현지인들에게 불만을 듣는다.

외국에서 자주 일어나는 실수들

어디에 있든지 항상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여야한다. 상대방에게 불편을 줄 수 있는 것을 모두를 자제해야한다. 그렇기 때문에 아웃리치 가기 전에 꼭 알아둬야 하는 것들이 있다.

목소리, 의상, 행동, 뒷정리, 공공질서 등을 유의해야 한다. 불가피하게 상대방에게 불편을 끼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례합니다’를 현지어로 이야기해야 한다.

아래는 외국에 나가서 저지를 수 있는 실수의 구체적인 사례들이다.

1. **공공장소에서** : 근엄하고 무뚝뚝한 표정을 짓지 말고 항상 미소를 띠어야 하고, 길이나 통로에서 상대방의 통행을 방해하면 안된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거슬릴 정도의 큰 목소리로 말하면 안된다.
2. **특송, 워십을 할 때** : 온누리 청년부의 특송예배는 보수적인 지역에 너무 자극적으로 비칠 수 있다. 특히 워십은 현지 문화와 달라서 현지 보수적인 문화에 실례가 될 수 있고 현지 목회자, 선교사에게 큰 곤란을 줄 수 있다. 사전 확인 하는 것을 습관화해야 한다.
3. **식사시** : 소리 내며 먹지 말아야하며, 입속에 음식물이 있는데 큰 소리로 이야기 말아야 한다. 밥그릇은 반드시 입 바로 밑에까지 가져가 흘리지 않도록 하며 먹는다. 식사 후에는 반드시 자신의 주변을 스스로 정리하는 것이 좋다.
4. **복장** : 지역마다 그곳의 문화와 분위기에 맞게 입어야 한다. 배낭여행 복장을 하고 싶으면 사전에 확인한 후 입어야한다. 현지인들에게 국가적, 민족적, 문화적으로 너무 자극적이지 않은 디자인을 선택해야 한다. 예를 들면 “Korea Fighting!”, “Korea-Japan”, 민족주의적인 문구, 너무 붉거나 자극적이거나 원색적인 티셔츠 등은 자제해야 한다.

다양한 문화 고려한 아웃리치

위 지적 사항을 세심히 지키려고 노력해보지 않았다면 당신은 아웃리치 다녀 온 후 현지인들에게 깊은 상처와 문제를 안겨주고 왔을 가능성이 많다. 아웃리치에서는 종종 생각지도 못했던 사소한 곳에서 공들여 쌓아놓은 열매를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일이 자주 있기 때문이다.

“전도는 나중에 하더라도 남의 나라 문화를 무시하는 버릇부터 좀 고쳐라”는 소리는 듣지 말아야 한다. 항상 매사를 현지 측에 사전 확인하는 습관을 길러야한다. 그리고 사람을 만날 때 마다 그분을 최대한 존중하는 습관을 기르자.

아웃리치도중 매일 저녁 “현지 문화를 어긴 사례”를 주님을 아끼는 마음으로 무기명으로 서로 지적해주는 방법도 바람직 할 것이다.

* 출처 : 온누리신문